

시그넷, 전기자동차 충전기 생산

2012년 4월 가동 예정으로 영광에 ... 95억원 투자 9500대 공급

전기자동차(EV) 선도 도시로 지정된 전남 영광군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공장이 들어선다.

영광군은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정기호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그넷시스템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공장 투자협약(MOU)을 6월27일 체결했다.

시그넷시스템은 대마산업단지에 1차적으로 2012년 4월까지 95억원을 투자해 급속 충전기 모듈 8000대, 완속 충전기 1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그넷시스템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해외계약 진척에 따라 2차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넷시스템은 일본 Marubeni상사와 2011년 1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5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일본 전기자동차 충전기 표준협회(CHAdeMO: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았다.

시그넷시스템은 전 세계에 60만대 이상의 산업용 충전기를 수출했으며,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현대자동차 버스 충전용 대용량 스테이션을 선보인 바 있다.

시그넷시스템은 현재 군산지역에서 급속충전기를 개발하고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으나 일본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와 전기자동차용 충전 인프라 확보에 대비해 영광군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4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선정된 영광군에는 6월28일 대마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하는 에코넥스를 포함해 5개 전기자동차 관련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다.

영광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관내 관공서 및 주요 관광지와 일반 사업장에 연차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1>